

‘이 대신 잇몸’...선발이 버텨야 산다



양현종 이의리 선 놀린 토마스 파노니 /연합뉴스 자료사진

KIA, 주중 SSG·NC·kt戰... 5위 수성 최대 고비

구멍 뚫린 뒷문 악재 속 6위 그룹 롯데·두산·NC와 5게임차 양현종·이의리 역투에 놀린·파노니 외국인 듀오 선전 희망



순위 변동 없이 5위를 달리고 있는 KIA가 이번 주 5위 수성의 최대 고비를 맞는다. 지난주 하위권 삼성, 롯데와의 경기에서 1승3패를 기록한 KIA는 최근 10경기에서 3승7패에 그치며 급격한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승자 없이 승률에서 갈린 롯데 자이언츠, 두산 베어스, NC 다이노스 등 공동 6위권 그룹에 5경기 차로 쫓긴다. 이제 5위도 안심할 수 없다. KIA는 본격적인 2연전이 시작하는 주중 SSG, NC, kt와 만난다. SSG에는 올 시즌 2승 10패로 절대 열세이며 kt에도 3승 1무 6패로 밀린다. NC에 6승 5패로 박빙 우세이나 지난달 22일 후반기 페이스 재개 이래 NC가 11승 1무 5패로 이 기간 전체 승률 2위를 달리는 중이라 버거운 대결이 예상된다. 지난달 팔꿈치 부상으로 장현식과 전상현이 빠진 상태에서 마무리 투수 정해영마저 이탈하면서 KIA의 뒷문은 사실상 뚫린 상태다. 이제 이 대신 잇몸으로 버텨야 한다. 불펜 부담이 가중되면서 선발 투수가 최대한

많은 이닝을 소화해야 마운드 운용에 승용이 트인다. 지난 13일 광주 롯데전에서 8월 팀 내 유일한 선발승을 거둔 2년차 이의리의 선전은 고무적이다. 이의리는 지난해 부상으로 94%이닝을 소화하는데 그쳤지만 올해 벌써 119%이닝을 던지며 규정 이닝(144이닝) 소화도 가능할 전망이다. 7승8패 평균자책점 3.84를 기록하며 위기의 마운드 버팀목 역할을 하고 있다. 로니 대체선수 파노니(1승 2패)도 지난 3일 한화전 6이닝 5피안타 6탈삼진 2실점에 이어 10일 삼성전 7이닝 5피안타 6탈삼진 2실점하며 2게임 연속 퀄리티스타트에 성공, 기대했던 모습을 보여줬다. 후반기 가장 놀라운 반전은 놀린이다. 지난달 27일 NC전에서 약 2달을 훌쩍 넘겨 복귀한 놀린은 4이닝 5피안타 1볼넷 5탈삼진 1실점 투구로 예전과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 그리고 지난 2일 한화전 6이닝 5피안타 4실점(3자책) 투구로 그 모습이 우연이 아님을 증명했다. 이어 치른 복귀 이후 3번째 경기였던 7일 두산전에선 8이닝 3피안타 1볼넷 7탈삼진 무실점 역투로 기대감을 높였다.

지난 14일 롯데전에서 선발 등판한 놀린(2승 6패)은 6이닝 6피안타(2피홈런) 5탈삼진 3실점으로 퀄리티스타트를 기록했지만 타선의 도움을 받지 못해 3승을 다음 기회로 넘겼다. 주중 분위기를 좌우할 선두 SSG와의 첫 2연전은 파노니와 김광현의 맞대결로 펼쳐진다. KIA가 안방에서 압도적 선두 SSG를 상대로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둔다면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도 있다. 최소한 양현종, 이의리, 임기영으로 이어지는 토종 선발진이 제몫을 해주고, KBO리그에 완벽 적응한 파노니와 후반기 깜짝 반전을 보여준 놀린의 역투에 타선이 제대로 터져준다면 5할 승부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KIA는 필승 계투조들이 돌아오기 전까지 1승1패 전락으로 5위 마지노선 사수에 사활을 걸어야 한다. /박희중기자

▶프로야구 팀별 순위 (15일 현재)

순위	팀	승	패	무	승률	게임차
1	SSG	71	31	3	0.696	-
2	LG	60	39	1	0.606	9.5
3	키움	61	43	2	0.587	11
4	kt	55	45	2	0.550	15
5	KIA	50	51	1	0.495	20.5
6	롯데	45	56	4	0.446	25.5
7	두산	44	55	2	0.444	25.5
8	NC	43	54	3	0.443	25.5
9	삼성	42	59	2	0.416	28.5
10	한화	31	69	2	0.310	39

신진서, 국수산맥배 첫 우승 변상일과 리턴매치서 설욕



한국 바둑랭킹 1위 신진서(22·사진) 9단이 국수산맥배 우승컵을 처음 들어 올렸다. 신진서는 15일 영암군 군민회관에서 열린 제8회 국수산맥 국제바둑대회 세계프로최강전 결승에서 랭킹 3위 변상일(25) 9단에 176수 만에 시간을 거뒀다. 지난해 국수산맥배 세계프로최강전 결승에서 변상일에 패했던 신진서는 1년 만의 리턴매치에서 승리하며 이 대회 정상에 올랐다. 이로써 신진서는 종합대회에서 21번째 우승이자 신애대회까지 포함하면 26번째 우승컵을 품에 안았다. 백을 잡은 신진서는 변상일과 중반까지 치열한 수 싸움을 펼치며 평평한 국면을 이어갔다. 승부를 알 수 없던 결승전은 하반 패 싸움에서 순식간에 결판났다. 변상일은 패싸움에서 이겨 우하귀 백을 생포했지만, 신진서는 그 대가로 상변에 큰 집을 마련하며 유리한 형세를 만들었다. 불리해진 변상일은 새로운 변화를 모색했지만 상황이 여의치 않자 제한된 시간에 착수하지 못해 시간패를 당했다. 국수산맥배에서 우승을 거둔 신진서와 변상일은 오는 18일부터 열리는 제27기 GS칼텍스배 프로기전 결승 5번기에서도 우승컵을 다툰다. /연합뉴스

KIA, 이대호 은퇴투어 선물로 '무등야구장 미니어처 트로피'



지난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이대호 은퇴투어에서 KIA와 롯데 선수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작은 사진은 KIA 타이거즈의 이대호 은퇴투어 선물인 무등야구장 미니어처 트로피. (KIA 타이거즈 제공)

프로야구 KIA타이거즈가 지난 13일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에서 열린 롯데 자이언츠와의 홈경기에 앞서 올 시즌을 끝으로 현역 생활을 마감하는 이대호의 은퇴투어를 개최했다. 이대호 기념 영상이 전광판으로 상영되며 시작된 행사에서 KIA는 구단을 대표해 김종국 감독이 이대호에게 은퇴 기념 선물을 전달했다. 김종국 감독에 이어 양현종이 선수단을 대표해 '리멤버 이대호' 기념 동판 액자와 꽃다발을 전달했다. 이어 양팀 선수들은 그라운드에 모여 기념촬영을 하며 이대호의 마지막 광주 시즌을 기념했다. /박희중기자



이강철·정민철·정민태·조계현

KBO '선발 투수' 레전드 선정

이강철(56) kt wiz 감독, 정민철(50) 한화 이글스 단장, 정민태(52) 전 한화 코치, 조계현(58) 전 KIA 타이거즈 단장이 KBO리그 40주년 기념 레전드에 이름을 올렸다. KBO 사무국은 15일 '40인 레전드'에 뽑힌 이들 4명을 소개하며 "야구는 투수 놀음이라는 격언처럼 팬들의 기억에 오래 남을 KBO리그의 명투수"라고 조명했다. 이강철은 선수 시절 '핵잠수함'이라 불릴 만큼 데뷔 첫해인 1989시즌부터 10승과 100탈삼진을 모두 넘어서었다. 이후 그는 1998시즌까지 10시즌 연속 10승과 100탈삼진을 넘기며 한국 프로 야구를 대표하는 잠수함 투수로 활약했다.



KBO '선발 투수' 레전드 4인. (KBO 제공)

KBO 리그 통산 승리 4위(152승), 투구이닝 3위(2천204.1이닝), 탈삼진 3위(1천751탈삼진)를 남긴 그는 레전드 9위로 선정됐다. 정민철은 KBO 황금세대의 '92학번'의 일원으로 마운드를 지배했는데, 고졸 신인으로 입단한 1992시즌 완봉 3회를 포함한 14승 4패 7세이브 145탈삼진을 기록했다. 완투형 투수였던 그는 역대 2번째로 많은 20년의 완봉승과 49완투승(6위)을 남겼다. 8시즌 연속 10승을 거뒀던 정민철은 통산 161승으로 승리 부문 2위에 올라 있으며, 이번 레전드 선정에서 40인 중 13위에 올랐다. 정민태 역시 한 시대를 풍미한 선발 투수다. 1996시즌부터 2000시즌까지 5시즌 연속 200이닝을 채웠고, 선발 21승

이라는 역대 선발 최다 연속 기록으로 '불패의 아이콘'이 됐다. 현대 왕조의 선발로 4번 한국시리즈 우승을 차지했고, 다승왕 3번과 승률왕 1번, 투수 부문 골든글러브 3회 수상으로 화려한 경력을 남긴 그는 레전드 18위에 자리했다. 끝으로 조계현은 '팔색조'라는 별명을 얻을 만큼 다양한 변화구를 능숙하게 던져 KBO리그를 호령했다. 이강철과 함께 현대 왕조의 선발 한 축을 담당했던 그는 타자와 싸움에서 절대 물러나지 않으며 개인 통산 20완봉, 64완투로 각각 역대 4위와 8위에 이름을 올려 레전드 26위로 선정됐다. 조계현에 대한 시상은 19일 광주에서 열리는 NC와 KIA의 경기에서, 이강철의 시상은 20일 수원 KIA-kt전에서 이뤄질 예정이다. /연합뉴스

남동헌, 대통령기 승마 '3관왕'

광주시체육회 소속 남동헌 제38회 대통령기 전국 승마대회에서 3관왕에 올랐다. 남동헌은 지난 11일 전북 장수승마장에서 열린 일반부 마장마술 경기 A Class에서 68.737점, B Class에서 68.392점을 획득하며 금메달을 목에 걸었다. 또 마장마술 S-1 Class에서도 70.147점으로 우승하며 대회 3관왕이라는 위업을 달성했다. 남동헌은 지난 2018 자카르타-팔렘방 아시안게임에 승마 국가대표로 출전해 마장마술 단체전에서 은메달을 획득했다. 또 2019년 제100회 전국체전에서 일반부 마장마술에 출전해 72.794점을 획득하며 금메달을 따낸 바 있다. 박도성 광주시승마협회 전무이사는 "우리 승마선수들이 각종 대회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둬 기쁘다.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승마 훈련 여건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박희중기자



제38회 대통령기 전국승마대회에서 3관왕을 차지한 남동헌이 이상동 광주시체육회장과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광주시체육회 제공)

20세 김주형, 임성재 제쳤다

세계랭킹 19위...한국 톱 랭커

2002년생 김주형(20·사진)이 남자 골프 세계랭킹에서 임성재(24)를 제치고 '한국인 톱 랭커'가 됐다. 김주형은 15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19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와 같은 20위를 지킨 임성재를 앞지른 한국 선수 최고 순위다. 올해 처음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132위였던 김주형은 7개월여 만에 100계단을 넘겨 끌어 올리는 저력을 뽐냈다. 1월 아시안투어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우승으로 89위로 도약한 그는 이후 여러 대회에 출전하며 꾸준히 순위를 끌어 올렸다. 특히 지난달 PGA 투어 제네시스 스크램블랜드오픈을 단독 3위로 마치며 세계랭킹이 61위에서 39위로 강추 뛰어오른 김주형은, 지난해 윈덤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첫 우승을 달성한 뒤엔 세계랭킹이 34위에서 21위로 올랐다. 이날 막을 내린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인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 공동 13위에 자리하며 세계랭킹도 소폭 상승, 한국 선수 최고 순위까지 제쳤다. 김주형은 지난달 얻은 PGA 투어 특별 임시 회원 자격을 살려 정식 임성재까지 성공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별 임시 회원으로 나선 3M 오픈에서 공동 26위, 로켓 모기지 클래식에서 7위에 오르며 사실상 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했고, 윈덤 챔피언십 '깜짝 우승'으로 곧장 PGA 투어 회원이 되는 것은 물론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해 선전 중이다. /연합뉴스



김주형은 15일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지난해보다 두 계단 상승한 19위에 이름을 올렸다. 지난해와 같은 20위를 지킨 임성재를 앞지른 한국 선수 최고 순위다. 올해 처음 발표된 세계랭킹에서 132위였던 김주형은 7개월여 만에 100계단을 넘겨 끌어 올리는 저력을 뽐냈다. 1월 아시안투어 싱가포르 인터내셔널 우승으로 89위로 도약한 그는 이후 여러 대회에 출전하며 꾸준히 순위를 끌어 올렸다. 특히 지난달 PGA 투어 제네시스 스크램블랜드오픈을 단독 3위로 마치며 세계랭킹이 61위에서 39위로 강추 뛰어오른 김주형은, 지난해 윈덤 챔피언십에서 PGA 투어 첫 우승을 달성한 뒤엔 세계랭킹이 34위에서 21위로 올랐다. 이날 막을 내린 PGA 투어 플레이오프 1차전인 페덱스 세인트주드 챔피언십에서 공동 13위에 자리하며 세계랭킹도 소폭 상승, 한국 선수 최고 순위까지 제쳤다. 김주형은 지난달 얻은 PGA 투어 특별 임시 회원 자격을 살려 정식 임성재까지 성공하며 승승장구하고 있다. 특별 임시 회원으로 나선 3M 오픈에서 공동 26위, 로켓 모기지 클래식에서 7위에 오르며 사실상 PGA 투어 출전권을 확보했고, 윈덤 챔피언십 '깜짝 우승'으로 곧장 PGA 투어 회원이 되는 것은 물론 플레이오프까지 진출해 선전 중이다. /연합뉴스